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출산력

시기별 변화추이와 사회문화적 함의

김지영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역사인류학 전공
anthropos@daum.net

I. 머리말

II. 왕실가족의 다산(多産)에 대한 소망

III. 왕실 여성의 출산력과 그 변화추이

IV. 왕실 출산력 변화의 사회문화적 요인들

V. 맺음말

I. 머리말

1970년대 이래로 서구사회에서는 여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출산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보편적인 생물학적 기능으로 간주해온 여성의 출산능력이 실제 출산행위로 실천되는 과정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관계들이 개입하는 정치적 장임을 논의해왔다.¹⁾ 여성의 출산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는 인간의 출산행위에 얽힌 복잡한 그물망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요즘과 같이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이로 인해 미래 한국사회와 국가에 가져올 ‘위기’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출산과 같은 인구 현상에 대한 일반인과 학계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출산력²⁾은 1960년대 초부터 꾸준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1980년대 후반에 출산력 수준이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된 저출산 현상과 출산력의 감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 이는 한국사회의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났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되었다.

1) 20세기 전반기 인류학의 출산연구는 초경, 출산, 폐경으로 이어지는 여성의 재생산과 관련된 문화적 관습의 다양성을 기술하거나 여성의 출산경험이 아니라 남성의 출산경험, 즉 남성이 출산과 맺는 관계와 권리에 관한 것이었다. 출산에 관한 연구가 최근까지도 주목받지 못한 것은 출산이 성인식이나 전쟁, 친족 조직이나 경제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 결과이며, 여성들의 출산경험을 문화적 현상이 아닌 생물학적인 것으로 간주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관한 논의는 김은실, 「출산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제12권 2호(1996), 119-153쪽 참조.

2) 인구학에서 출산력(fertility)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임신의 능력(가임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행위를 통하여 자녀를 실제로 몇 명 정도나 가지게 되는가를 의미한다. 즉, 결혼, 피임, 건강,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람들이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수준을 일컫는다(권태환·김두섭,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88쪽). 자연 상태, 즉 피임이나 기타 출산억제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가임능력은 부부당 15명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부부들이 가임력이 허용하는 한계까지 출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이홍탁, 『인구학-이론과 실제』, 범문사, 1994, 219-220쪽). 따라서 출산력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의 규명은 인구학의 주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3) 김태현·이삼식·김동희,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 출산력-인구센서스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2006), 1-23쪽.

한국은 전국적인 규모의 출산력 조사를 1964년부터 시작하였으므로 한국사회의 출산력 변동추세와 원인을 다루고 있는 글들은 대체로 1960년대 이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⁴⁾ 그리고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출산력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 또한 동질적이지 않음도 지금까지의 인구학적 연구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⁵⁾

출산력, 사망력 및 인구규모와 변화추세는 사회경제사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이지만, 한국사회에서 최초의 근대적 인구 센서스가 이루어진 1925년 이전의 역사인구학적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⁶⁾ 손병규는 인구사적 측면에서 호적과 족보가 가지는 자료적 특성을 고찰하였고⁷⁾, 이기순과 차명수는 조선시대 작성된 양반가문의 족보를 이용하여 양반계층의 혼인, 출생과 사망에 관한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⁸⁾ 그러나 주요한 인구학적 데이터 가운데 하나로 족보 자료를 이용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자료적 한계로 인하여 이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조선시대의 인구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거시적인 통계적 접근 방식과 난해한 통계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숫자정보들이 조선사회와 조선사람들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왕실가족의 경우, 양반계층에 비하여 비교적 정확한 인구학적 자료들을 담고 있는 왕실 자료들이 존재한다. 왕실족보, 행장, 지문 등과 같은 기록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 『승정

4) 여성의 지위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김한곤, 『한국 출산력 변화의 원인과 전망』, 영남대학교출판부, 1993, 94-107쪽), 결혼연령과 결혼 후 첫 자녀를 낳을 때까지의 기간인 첫 출산간격에 나타난 변화가 출산력 수준에 미치는 함의(은기수,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최근의 낮은 출산력 수준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5집 6호, 2001, 105-139쪽), 남아 선호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이성용, 「남아 선호와 출산력 간의 관계」, 『한국인구학』 제26권 제1호, 2006, 31-57쪽)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5) 은기수는 이와 관련하여 1960년대 이후 최근 40년 동안 한국사회의 출산력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한 대표적인 세 가지 요인으로 결혼연령의 상승, 피임의 실천, 인공유산의 광범위한 시술이라고 정리하였다. 은기수, 위의 책, 106쪽.

6) 차명수, 「조선후기의 출산력, 사망력 및 인구증가: 네 족보에 나타난 1700-1899년간 생물 기록을 이용한 연구」, 『한국인구학』 제32권 제1호(2009), 113쪽.

7) 손병규, 「인구사적 측면에서 본 호적과 족보의 자료적 성격-17-19세기 경상도 단성현의 호적대장과 합천이씨가의 족보」, 『대동문화연구』 제46집(2004), 79-109쪽.

8) 이기순, 「조선후기 사족의 출생과 사망」, 『사총』 제60권(2005), 101-147쪽; 차명수, 앞의 논문, 113-137쪽.

원일기』 등과 같은 연대기 자료를 통해서 왕실 가족구성원들의 출생, 혼인, 자녀출산, 사망과 관련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은 조선시대 특수한 신분계층에 속하면서 비교적 정확한 인구학적 자료들을 남기고 있는 왕실 여성들의 출산력 수준과 변화추이, 그리고 그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의 출산력과 왕대별 자녀 수의 실태를 파악하고, 왕실 출산력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 왕실 여성의 출산력 저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혼인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환기시키고, 전통시대의 다산관념 또는 다산에 대한 소망이 현실세계에서 실현되는 방식을 조선 왕실의 출산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왕실의 출산력이 비교적 높았던 조선전기에 비하여 왕실의 출산력이 현격하게 저하될 뿐만 아니라, 왕비로부터 왕위계승자가 태어나지 않는 조선후기의 현실을 조선사회의 유교화 과정이라고 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왕실의 자녀출산에 관한 기록은 주로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돈녕보첩(敦寧譜牒)』 같은 왕실족보를 이용하였다.⁹⁾ 특히 『선원계보기략』은 왕실 자녀출산의 왕대별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왕비와 후궁이 출산한 자녀 수를 구분하여 도식화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II. 왕실가족의 다산(多産)에 대한 소망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왕실자손이 번성하는 경사를 일컬어 ‘종사지경(蟲斯之慶)’이라 하였다. 여기서 ‘종사(蟲斯)’는 여치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한꺼번에 99개의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 이 ‘종사지경’이라는 용어에는 왕실가족의 다산관념이 상징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표현은 주로 왕실의 가례에서 왕비를 책봉하는 문서인 옥책문¹⁰⁾에 공식적으로

9) 『선원계보기략』(K2-1036)은 1908년(순종 1)에 간행된 26권 8책을 활용하였다. 『선원계보기략』에 기재된 왕실 출산 관련 정보를 재확인하기 위해 『돈녕보첩』(K2-1686)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두 족보는 장서각 한국학 자료센터에 DB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인명검색을 통하여 자녀출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http://royal.kostma.net/Ge/Main> 참조).

기록되거나 신하들이 왕실의 가례(嘉禮)를 축하할 때¹¹⁾, 왕세자나 왕이 아직 후사(왕위계승자)를 얻지 못한 것을 걱정할 때¹²⁾ 흔히 등장한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새로이 형성된 조선 왕실은 주나라 왕실을 모범으로 삼아 왕실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대대로 복록을 누리기를 바랐다.¹³⁾ 왕실에서 ‘다산’은 곧 ‘왕실의 번영’을 의미하였고, 조선이라는 국가의 번영과도 맞닿아 있었다. 따라서 왕실의 종사지경(蟲斯之慶)은 곧 국가의 경사, ‘종사지경(宗社之慶)’과 동일시되었다.¹⁴⁾

다음은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가 왕대비로 있을 때, 정조의 비였던 효의왕후가 병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음[不妊]을 공식화하고, 대신들에게 정조의 후궁(嬪御)을 간택하도록 한 언문교서[諺書] 내용의 일부이다. 왕의 자손, 특히 왕위계승자가 태어나는 ‘종사지경’은 곧 ‘종사지탁(宗社之托)’을 의미하였다.

아! 4백 년이 된 종사(宗社)의 의탁이 오직 주상(主上)의 몸 하나에 달려 있는데, 춘추(春秋)가 거의 서른에 가까워졌는데도 지금까지 오히려 종사(蟲斯)의 경사(慶事)가 늦어지고 있습니다.(嗚呼! 四百年宗社之托, 惟在主上一身. 而春秋幾近三十, 蟲斯之慶, 尙今晚晚)

조선이라는 국가의 영속성과 왕실의 번영을 보장하는 왕실자녀의 탄생은 왕과 왕비를 포함한 왕실어른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특히 선대왕이 죽고, 왕위계승자가 왕위에 오르면 왕실에서는 종묘사직을 견고히 할 다음 왕위계승자인 원자(元子)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러한 이유에서 왕위계승자인 원자의 탄생을 늦어지는 것은 종묘사직의 위기로 받아들여졌다.

왕실에서는 특히 왕과 왕세자의 가례 때에 왕실의 다산을 기원하거나 아들 낳기를 바라는 소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었다. 따라서 왕실가족의 다산에 대한 소망은 가례정사(嘉禮正使, 정1품)나 가례부사(嘉禮副使,

10) 『단종실록』 2년(1454) 1월 22일(갑술). “…… 於戲! 合體同歡, 以承宗廟, 闢維之化, 蟲斯之慶, 皆自今日始, 可不慎歟?……”

11) 『고종실록』 3년(1866) 3월 22일(신사).

12) 『숙종실록』 45년(1719) 2월 23일(병인). “…… 東宮春秋已踰三十, 而尙無 蟲斯之慶……”

13) 『태종실록』 14년(1414) 1월 16일(신묘).

14) 『영조실록』 9년(1733) 7월 1일(경진).

정2품)와 같은 의례담당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신혼방인 침전(寢殿)과 같은 일상생활 공간이나 예비신부가 삼간택을 마친 후부터 친영(親迎) 전까지 거쳐하는 별궁(別宮)과 같은 특별한 의례공간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¹⁵⁾

예를 들면, 왕실 가례의 집사관을 맡게 되는 정사와 부사는 반드시 ‘복이 많은 사람’이 맡도록 하였다.¹⁶⁾ 이는 다복한 사람이 혼례를 주관함으로써 그가 누린 복이 혼인당사자인 왕과 왕비의 생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왕실의 소망과 이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은 가례정사와 가례부사는 그에 적합한 인물을 찾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다. 가례정사와 같은 의례담당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복(多福)의 기준은 부부가 해로(偕老)하고 무병장수하며, 반드시 많은 아들을 두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일례로, 숙종은 왕세자(후일 경종) 가례에 정사의 예비후보(預差)를 잘못 임명한 담당관원을 파직하기도 하였다.¹⁷⁾ 그 이유는 담당관원이 선출한 예비후보가 아들이 하나(獨子)이거나 막 아들을 잃은 대신으로 왕실에서 요구하는 다복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왕실 가례에서 정사와 부사를 맡은 다복한 사람의 자녀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81년(숙종 7) 숙종과 인현왕후의 가례에 정사를 맡은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은 6남 1녀를 자녀로 두었다. 1695년(숙종 21) 경종과 단의왕후의 가례에서 부사를 맡은 인현왕후의 사촌오빠인 민진장(閔鎭長)은 5남 3녀를 자녀로 두었다.¹⁸⁾ 숙종과 인원왕후의 가례에서 부사를 맡은 인경왕후 김씨의 친오빠 김진구(金鎭龜)는 9남 3녀를 자녀로 두었다.¹⁹⁾ 그렇다고 왕실 가례의 정사와 부사를 모두 숙종대의

15) 그림을 매개로 한 왕실의 자녀기원에 관해서는 김지영의 논문에서 일부 다루었다. 신혼방인 침전의 장식용으로 사용된 <구추봉도(九雛鳳圖)>가 봉황이라는 상상 속의 새를 형상화하여 왕실가족의 다산에 대한 소망을 기원했다고 한다면, 예비신부가 친영 전까지 신부수업을 받으며 머무르던 별궁에서 특별한 ‘용도’로 제작되어 사용되었던 <곽분양행락도(郭汾陽行樂圖)>는 역사 속 실제 인물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김지영, 「조선 왕실의 출산문화 연구: 역사인류학적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10), 75-85쪽.

16) 『숙종실록』 22년(1696) 4월 27일(임자), 28년(1702) 9월 14일(임자)의 기사를 보면, 정사는 대신 가운데 차출하고, 부사는 반드시 완전한 복을 누린 사람(副使則必以完福之人差出)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17) 『숙종실록』 22년(1696) 4월 26일(신해).

18) 『숙종실록』 22년(1696) 4월 26일(신해).

19) 『숙종실록』 37년(1702) 9월 2일(무진).

사례와 같이 아들을 많이 둔 사람이나 다산한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819년(순조 19) 익종(효명세자)과 신정왕후의 가례에 정사를 맡은 서용보(徐龍輔)는 1남 1녀를 자녀로 두었다.²⁰⁾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4남 1녀를 낳았으므로, 서용보는 아들을 많이 둔 가계출신이었다.²¹⁾

또 다른 예로, 왕실 가례에서 특별히 제작된 병풍²²⁾인 <곽분양행락도(郭汾陽行樂圖)>는 왕실가족이 이상적으로 추구했던 구체적인 자녀 수를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곽분양행락도>는 중국 당대의 역사적인 인물인 곽자의(697-781) 장군의 영화롭고 다복한 생애를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림 속의 주인공인 곽자의는 755년 안록산의 난을 평정하고, 그 후 서북지방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 그 공로로 분양왕에 책봉되었다. 곽자의라는 인물은 실제 8남 7녀를 자녀로 두었는데, 아들과 사위들이 모두 크게 출세하였고, 손자와 증손자들을 일일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며, 85세까지 장수하여 다복의 상징이 된 인물이다. 특히 곽자의가 아들과 딸을 모두 합하여 15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점이 강조되어 <곽자의팔자칠서도(郭子儀八子七壻圖)>라고 불리며, 소설 <곽분양전>과 함께 19세기 조선사회의 상류층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왕실의 경우, 1802년(순조 2) 왕실 가례 때부터 <곽분양행락도>를 사용하였는데, 삼간택을 거쳐 왕비나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여성들이 가례 당일까지 머무는 장소인 별궁에 항상 배치되었다. 여기에는 왕실로 새로 들어온 여성을 통하여 왕실의 자손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²³⁾ 역사적 실존 인물로, 분양왕이었던 곽자의의 8남 7녀(사위)는

20) 『순조실록』 19년(1819) 8월 13일(임인).

21) 당시 부사를 맡았던 김이교(金履喬)는 아들을 많이 두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서각 한국학자료센터의 족보인물검색을 통해서도 자녀 수를 파악할 수 없었다.

22) 병풍은 예로부터 왕실에서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된 물건이다. 왕실에서는 병풍에 그린 그림을 통해 장식적인 기능과 더불어 그 병풍이 조성하는 공간의 상징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왕권을 상징하는 일월오악도병, 장수와 부귀를 상징하는 십장생병풍이나 모란병풍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이성미,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된 병풍』,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특별강연 궁궐의 장식그림 자료집』, 국립고궁박물관(2009), 5쪽.

23) <백자동도(百子童圖)>도 왕실의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로 왕실 가례에서 사용된 병풍이다. 이 그림은 어린아들이 정원에서 뛰노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를 거느린 분양왕의 묘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병풍도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로 1819년과 1882년 왕실 가례 때 사용되었고, 1892년 고종의 망오(望五)를 기념하

왕실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다산의 구체적인 실체로 별궁에 머물던 왕비, 왕세자빈과 같은 왕실 여성에게 각인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왕실가족이 가능한 한 많은 자녀를 얻고자 했던 소망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국가의 번영과 동일시되면서 조선초기부터 왕실문화에 영향을 미쳤고, 왕실의 자손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다산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19세기에 왕실 가례에서 〈곽분양행락도〉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조선후기의 지속적인 왕실 출산력 감소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녀에 대한 욕구가 커져 갈수록 ‘팔자칠서(八子七壻)’는 왕실가족이 실현시켜야 할 다산의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갔다.²⁴⁾

III. 왕실 여성의 출산력과 그 변화추이

여기서는 왕실족보인 『선원계보기략』을 주로 활용하여 다산을 추구했던 왕실의 자녀출산 실태와 왕실 출산력에 나타난 시대별 변화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왕비의 자녀인지 후궁의 자녀인지의 여부와 출생순서, 태어난 자녀의 성별을 구분하여 도표화했으며, 역대 왕들의 총 자녀 수를 수치화하였다.²⁵⁾ 조선시대 왕자녀 수의 시기별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데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일찍 죽었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재위기간이 짧았던 왕들, 세조와 같이 개인적으로 후궁을 많이 두는 것을 꺼렸던 왕들은 제외하였다.²⁶⁾

우선 조선시대 왕대별 총 자녀 수의 변화추이를 나타내는 도표1을 살펴보면, 왕대별 자녀 수가 인조 이전과 인조 이후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조 이전에 해당하는 태종, 세종, 성종, 중종, 선조와 같은 왕은 적게는 자녀 수가 20명에서 많게는 29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는 진찬(進饌)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성미, 「장서각소장 조선왕조 가례도감의례의 미술사적 고찰」, 『장서각소장 가례도감 의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87쪽.

24) 효종-현종-숙종으로 이어지는 삼종혈맥을 이어줄 왕위계승자의 탄생이 늦어지면서 숙종대 이후로 원자에 대한 욕구가 그 이전 시기보다 더욱 강해지고, 왕실 자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다산에 대한 소망 또한 더욱 커져갔다.

25) 상세한 내용은 부록1 ‘조선 왕실의 자녀출산’ 참조.

26) 도표1에서는 왕대별 총 자녀 수를 표시하되, 왕실 출산력의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에서는 제외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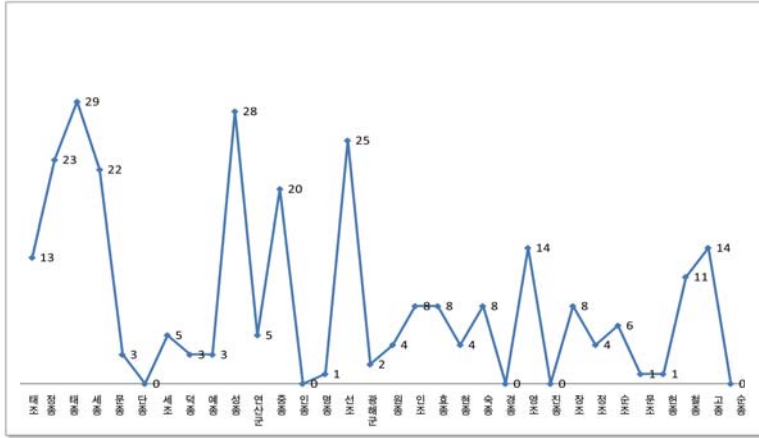


도표1-왕대별 총 자녀 수 변화추이

인조 이후에는 왕대별 자녀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어 적게는 4명, 많을 때는 14명 수준이었다. 인조 이전에는 각 왕들의 평균 자녀 수가 12명이었 다면, 인조 이후에는 6명으로 줄어드는 변화를 나타냈다. 그리고 인조 이후에는 그 전에 비해 혼인할 때까지 성장한 자녀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 고, ‘조졸(早卒)’과 같이 일찍 죽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²⁷⁾ 인조 이후에는 왕실의 출산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반면, 자녀들의 사망 률은 높아지면서 왕실의 생존 자녀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5명의 자녀를 둔 광자와와 같이 많은 자녀를 원했던 왕실가족은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인조 이전에는 왕실의 다산에 대한 소망을 실현한 왕이 다수 나타났지만, 인조 이후에는 이를 실현시킨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

왕실 출산력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왕실 여성들의 출산력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공식적으로 왕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은 왕비와 후궁으로 나뉜다. 따라서 왕비 출산력과 후궁 출산력의 변화추이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도표2 참조).

먼저, 왕비 출산력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전기에

27) 왕자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유아기에 죽은 경우가 이에 주로 해당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군’, ‘○○군’, ‘○○공주’, ‘○○옹주’와 같이 7-8세 전후로 왕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봉작명을 받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도 ‘조졸’로 표기되 기도 한다.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정조의 후궁 2명이 4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다. 철종의 후궁 6명이 10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1명의 옹주를 제외하고 모두 일찍 죽었다. 그리고 고종의 후궁 5명이 9명을 출산하였으나, 그 가운데 5명은 일찍 죽었다. 조선 후기 왕의 자녀를 출산한 후궁의 수가 줄면서 후궁이 출산한 자녀 수 또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왕실의 출산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국왕의 다음 세대에 등장하는 국왕은 후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왕실 출산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성종, 선조, 영조, 고종과 같은 왕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 조선시대 왕실의 총 자녀 수 273명 가운데 왕비의 자녀는 93명, 후궁의 자녀는 180명으로 2/3가 후궁소생으로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의 출생성비를 살펴보면, 남이는 152명, 여이는 121명으로 남아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는 인조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조 이전의 총 출생 자녀 수는 183명이고, 인조 이후에는 총 출생아 수가 90명으로 총 자녀 수가 1/2로 급감하였다. 왕비의 자녀 수와 후궁의 자녀 수에서는 더욱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인조 이전에 왕비소생의 자녀 수는 59명이고, 인조 이후에는 34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궁소생 자녀 수의 경우, 인조 이전에는 127명, 인조 이후에는 53명으로 더욱 큰 차이를 보였다. 인조 이후에는 왕비와 후궁소생의 자녀 수가 모두 감소하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왕비소생 자녀 수의 감소폭에 비하여 후궁소생 자녀 수의 감소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다음으로 조선시대 역대 왕비의 혼인연령, 초산연령, 출산간격, 출산 자녀 수 등을 통하여 조선시대 왕비 출산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표3-1을 통해 살펴보면, 왕비의 혼인연령은 조선전기에 비하여 조선후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조선전기에는 왕비의 혼인연령이 보통 13-15세였으나, 현종비인 명성왕후부터 평균 혼인연령이 10-11세로 낮아지고 있다. 도표3-2를 보면, 왕의 계비로 간택된 경우에는 혼인연령이 15세 전후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계비간택의 특성상 나타나는 혼인연령의 상승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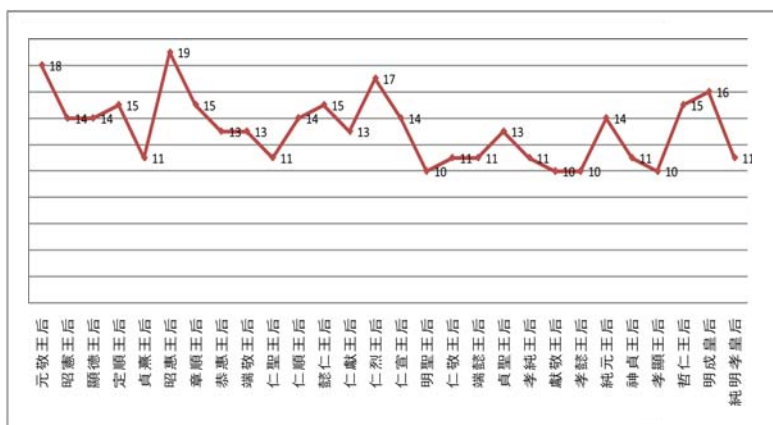


도표3-1-정비(正妃)의 혼인연령(평균 13.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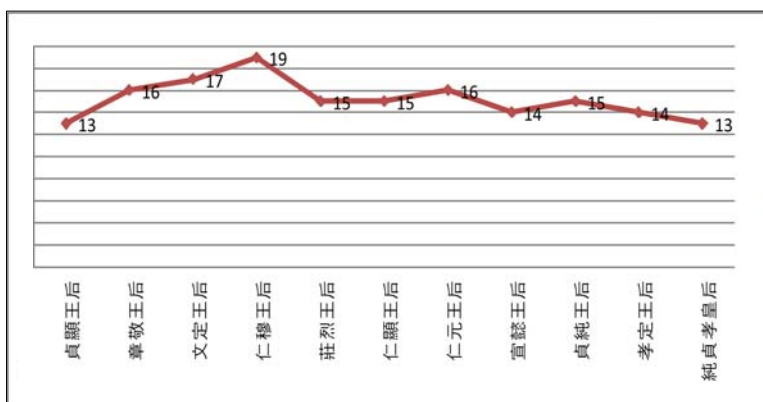


도표3-2-계비(繼妃)의 혼인연령(평균 15.2세)

왕비의 혼인연령이 조선후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에 비하여 왕비의 초산(初産)연령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20세 전후로 첫 자녀를 출산하였다. 초산연령이 가장 낮은 왕비는 10세에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16세에 첫 자녀를 출산한 장조비 헌경왕후(혜경궁 홍씨)이다. 혼인연령에 비하여 초산연령이 가장 높은 왕비는 11세에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20세에 첫 자녀를 출산한 문조비 신정왕후이다. 조선후기에는 왕비의 혼인연령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혼인연령과 첫 자녀 출산간격 사이에는 별 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도표4를 통해 살펴보면, 왕비의 출산터울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조선시대 왕비의 평균 출산터울은 1-3년 정도로 나타났다.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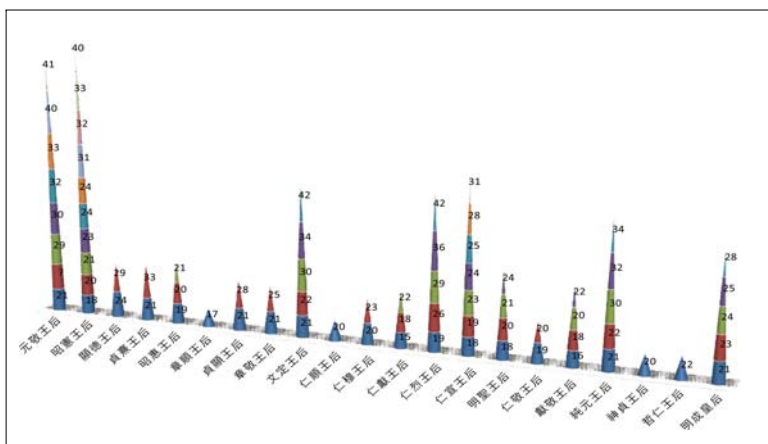


도표4-역대 왕비의 초산연령과 출산터울

시대 왕비 가운데 최고의 출산력을 가진 왕비는 소헌왕후이다. 소헌왕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왕비의 출산력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소헌왕후는 18세 초산을 시작으로 20대에는 평균 1-2년 터울로 6명의 자녀를 연속적으로 낳은 후 7년의 긴 출산터울을 두고, 31세 이후에 다시 출산을 시작하여 40세까지 4명의 자녀를 더 낳았다. 이러한 현상은 왕실 여성의 수유 및 양육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왕실 여성들은 대체로 유모와 보모를 통해서 한 여성에게 가중되는 모유수유와 자녀양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도 소헌왕후와 같이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출산을 하되, 일정 정도의 자녀 수에 도달하면 출산터울을 많이 두는 전략을 사용하여 왕비의 출산과 양육으로부터 오는 육체적 부담을 줄였던 것으로 보인다. 왕실의 경우에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그다지 큰 고려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연속되는 출산으로 인한 왕비의 건강상의 문제 또는 출산위험으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으로부터 출산터울을 조절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재충전기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왕비에게 출산과 양육 이외에 왕실 내명부를 총괄하고 지휘해야 하는 공식적인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조선시대 왕비들은 대체로 20세 전후로 초산을 시작하여 30대 초반에 단산(斷産)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왕비들이 단산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조선시대 왕비들은 15-49세에 해당하는 여성의 가임기 내내 출산을 지속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노산의 사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세종비 소헌왕후가 40세에 아들 영응대군을, 중종비 문정왕후가 42세에 인순공주를 출산하였고, 인조비 인열왕후가 42세에 아들을 낳은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면, 인열왕후의 경우 출산 후 갑자기 승하하였는데, 노산과 산후병이 죽음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노산과 같은 출산위험이 왕비가 가임기 내내 출산을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역대 왕비의 출산력에 나타난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왕비들의 출산력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점이다. 즉,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왕비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왕실 출산력 변화의 사회문화적 요인들

한 사회의 출산력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두 요소는 출산의 양(quantum)과 속도(tempo)이다. 최근까지도 두 요소 가운데 흔히 속도보다 ‘일정 기간에 태어나는 출생아의 수’와 같은 양이 출산력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았다.²⁹⁾ 앞에서 살펴본 왕실 출산력 수준의 변화추이 또한 속도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하였고, 조선후기에 나타나는 왕실 여성들의 낮은 출산력 수준은 왕실 여성들이 일생 동안 낳은 자녀 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조선후기 왕실 여성의 출산력 감소에 영향을 준 중요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무엇일까? 여기서는 조선초기부터 왕실의 ‘광계사(廣繼嗣)’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으로 활용된 왕실 내명부의 후궁제도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조선후기의 후궁 수 감소 현상을 가져온 사회문화적 요인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으로 조선사회가 유교화됨에 따라 조선후기로 갈수록 예의 실천이 강조되는 현상을 주목하였다. 특히 상례의 3년상과 왕실의 제사대상자 수의 증가로 인한 국왕 재계(齋戒)기간의 실질적인 증가가 왕실 여성들의 출산력

29) 은기수는 결혼연령과 첫 출산시율과의 관계가 최근의 낮은 출산력 수준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출산력 수준과 출산의 속도를 조명한 연구로 주목된다. 은기수, 앞의 논문, 105-139쪽.

감소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1. 내명부(內命婦)³⁰⁾제도와 ‘광계사’의 실천

조선시대 왕실 내명부의 후궁제도는 왕실의 후손을 많이 얻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조선시대 왕실 내명부제도는 태조와 태종을 거쳐 세종대에 구체적인 형식이 갖추어졌다.³¹⁾ 그리고 조선 성종대에 이르러 내명부의 직제가 법전에 성문화되었다. 원래 내명부는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황제의 비빈 및 황태자의 양제 이하를 지칭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내직(內職)이라 하였으며, 조선초기에는 내관(內官) 혹은 여관(女官)이라고 하였다. 세종대에는 ‘내관공관지제(內官宮官之制)’라 하여 궁궐 내 여성들을 좀 더 세분화하고, 그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내관은 왕의 후궁을 지칭하는 용어로 품계는 정1품 빈(嬪)부터 종4품 숙원(淑媛)까지 모두 8등급으로 나뉜다. 공관은 흔히 궁인, 궁녀, 여관으로 지칭되며, 왕실가족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여성들로, 넓은 의미에서 ‘왕의 여자’의 범주에 속한다. 공관은 잠재적으로 왕의 후궁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여성들이다.³²⁾ 따라서 여기에 속한 여성들은 왕의 승은(承恩) 여부와 상관없이 일생 동안 혼인을 할 수 없고, 궁밖 출입 또한 자유롭지 못하였다. 공관직에 속하는 궁인으로서 왕의 승은을 입고, 공식적인 내명부의 내관품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 상궁이라 한다. 이들은 원래 자신이 맡았던 궁인의 직무에서는 제외되는

30) 명부(命婦)란 “부인수봉호자지칭(婦人受封號者之稱)”이라 하여, 부인으로서 봉호를 받은 여성을 일컫는다. 크게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로 구분된다. 내명부에는 왕의 후궁들과 상궁 이하의 궁인직들로, 궁궐 안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속한다. 외명부에는 왕의 적녀(공주)와 서녀(옹주), 왕비의 어머니, 왕의 유모(봉보부인), 왕세자의 적녀(군주)와 서녀(현주), 종친의 처, 문무관의 처들이 속하며, 궁궐 밖에서 생활하는 명부들이다.

31) 이영숙, 「조선초기 내명부에 대하여」, 『역사학보』 96집(1982), 92-138쪽.

32) 궁인들은 소속된 처소별로 다양한 직무에 따라 지밀, 침방, 수방, 세수간, 내소주방, 외소주방, 세담방 등에 소속되었다. 처소 주인의 시중, 바느질, 자수, 음식, 청소, 세면, 빨래 등이 궁인들의 주요 업무이다. 이 가운데 침실시중을 드는 지밀나인이 왕의 승은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이들의 입궁나이는 다른 소속궁인들에 비해 어리고, 따로 시녀의 교지를 받았다. 지밀나인들의 입궁나이는 4-10세로 기타 직무에 소속된 궁인들의 입궁나이인 12세 내외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여관제도(女官制度)의 연혁(沿革)』(K2-2032) 참조.

예우를 받는다. 궁관은 정5품 상궁(尙宮), 상의(尙儀)로부터 종9품 주변궁(奏變宮)까지 모두 10등급으로 나뉜다.

왕실 내명부제도 가운데 내관, 즉 왕의 후궁들은 궁극적으로 왕실의 자손을 번창시키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왕의 후궁들은 태어난 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함께 주어진 품계에 따라 내명부를 총괄하는 왕비를 돕는 공식적인 지위를 가졌다.

왕의 후궁은 크게 간택후궁과 승은후궁으로 나뉜다.³³⁾ 간택후궁은 왕비를 선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가문, 부덕, 자색을 검비한 양반가의 딸 가운데 공식적인 간택절차를 거쳐 후궁의 반열에 오른 여성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간택후궁의 품계는 종2품 숙의에서부터 시작된다. 승은후궁은 간택후궁과는 달리 궁관 가운데 왕의 개인적인 선택, 즉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된 여성들이다. 따라서 승은후궁의 품계는 종4품 숙원에서부터 시작된다. 승은후궁들은 미천한 신분 출신으로, 대체로 왕의 자녀를 잉태했을 경우에 공식적인 품계를 받아 후궁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조선시대 후궁제도의 기초를 마련한 왕은 태종이다. 태종은 중국 황실에서 한 번에 9명의 배우자를 맞이하는 일취구녀제(一娶九女制)와 달리 ‘제후부인위삼궁(諸侯夫人爲三宮)’의 제도를 따라 1빈2잉제(一嬪二媵制)로 정하여 모두 3명의 간택후궁을 두도록 하였다.³⁴⁾

다음은 세종이 부왕인 태종과 신하의 권유로 자신의 간택후궁을 들이도록 윤허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다.³⁵⁾

예조 판서 신상 등이 계하기를, “신 등이 상고하오니, 삼궁(三宮)에 빈잉(嬪媵)의 제도는 고전(古典)에 기재되어 있사온 바, 내치(內治)를 바르게 하고 계사(繼嗣)를 넓게 하려는 바이니,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조에서 영락 19년에 품신하여 교지를 받은 것은 실로 종사(宗社) 만대를 위한 계책이었사온데, 태종께서 두번이나 유사(攸司)에 명하시어, 전하를 위하여 가례(嘉禮)를 성취하려 하셨으나, 오늘까지 이르도록 성취되지 못하였사오니, 간절히 생각하오면 종사의 대계를

33) 이영숙은 후궁을 ‘정식후궁’과 ‘승은후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미선은 ‘간택후궁’과 ‘비간택후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여성들이 후궁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방식, 즉 공식적인 간택이나 왕의 사적인 선택인 승은이냐에 초점을 맞춰 ‘간택후궁’과 ‘승은후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하고자 한다. 이영숙, 앞의 논문, 100쪽; 이미선, 「조선 초기의 후궁-태조-성종조 후궁의 신분적 지위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96호 (2009), 51쪽.

34) 이미선, 앞의 논문, 47쪽.

35) 『세종실록』 6년(1424) 9월 21일(계사).

늦출 수 없는 것이요, 태종의 명하신 것을 어길 수 없는 것이오니, 옛 제도에 의거하여 인현(仁賢)하고 충효(忠孝)한 집의 후예를 잘 골라서 빈잉(嬪嬙)의 예를 이루게 하시어 신민의 바람에 부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의 사례를 보면, 그 당시 소헌왕후 심씨가 세종과의 사이에서 이미 4남 2녀의 자녀를 두었음에도³⁶⁾ 종사의 대계를 위하여 ‘광계사’를 실현시키고자 후궁을 간택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세종이 1436년(세종 18)에 왕세자빈 봉씨의 폐출과 관련하여 신하에게 한 말의 일부인데, 왕세자의 후궁을 간택하는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정미년(세종 9)에 세자가 나이 14세인데 유사가 ‘후사를 잇는 일이 중대하므로(繼嗣之重) 빨리 배필을 세워야 될 것이라’ 한 까닭으로, 세족인 김씨(金氏)를 간택하여 빈으로 삼았으나 김씨는 정말 어리석고 못나고 총명하지 못하여, 기유년(세종 11)의 사건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폐하고 다시 봉씨(奉氏)를 간택했는데, 뜻밖에도 세자가 친영(親迎)한 이후로 금슬(琴瑟)이 서로 좋지 못한 지가 몇 해나 되었다. 내가 중궁과 함께 상시 가르치고 타일라서, 그 후에는 조금 대하는 모양이 다르게 되었지만, 침실(寢室)의 일까지야 비록 부모일지라도 어찌 자식에게 다 가르칠 수 있겠는가. 생각하건대, 세자는 나라의 저부(儲副)이므로 선대를 계승하는 도리로서는 후사를 두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부부관계가 이와 같았다. 또 어린 나이인데 또한 잉첩(媵妾)을 많이 둘 수가 없으므로 근심한 지가 오래되었다. 시험 삼아 이러한 뜻을 가지고 허조에게 의논하였더니, 허조가 아뢰기를,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찌 조그만 혐의로 대체에 어두워셔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명문집의 덕 있는 규수를 잘 골라 뽑아서, 궁궐(宮掖)에 자리를 차차하게 하여, 후사 잇는 길을 넓히도록 꾀하는 일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當妙選名德, 備位宮掖, 圖廣繼嗣, 不可緩也)” 하였다. 이로 인하여 세 사람의 승휘(承徽)를 뽑아 들었는데, 봉씨는 성질이 시기하고 질투함이 심하여서, 처음에는 사랑을 독차지 못한 일로 오랫동안 원망과 앙심을 품고 있다가, 권 승휘(權承徽)가 임신을 하게 되자, 봉씨가 더욱 분개하고 원망하여 항상 궁인에게 말하기를, ‘권 승휘가 아들을 두게 되면 우리들은 쫓겨나야 할 거야’ 하였고, 때로는 소리 내어 울기도 하니, 그 소리가 궁중에까지 들리었다. 내가 중궁과 같이 봉씨를 불러서 타이르기를, ‘네가 매우 어리석다. 네가 세자의 빈이 되었는데도 아들이 없는데, 권 승휘가 다행히 아들을 두게 되었으니, 인지상정으로서 기뻐할 일인데도 도리어 원망하는

36) 1424년(세종 6) 당시 이미 태어난 자녀는 정소공주, 문종, 정의공주, 세조, 안평대군, 임영대군으로, 소헌왕후는 그 후에 4명의 대군을 더 출산하였다. 세종과 소헌왕후 심씨 사이에서 모두 8남 2녀가 태어났다.

마음이 있다니, 또한 괴이하지 않는가’ 했으나, 봉씨는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³⁷⁾

문종의 사례에서와 같이 왕실에서는 후사를 잇는 것이 중요하므로 어린 나이임에도 왕세자의 가례를 서둘렀다. 세종은 왕위계승자를 얻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왕실 자손들을 많이 얻으려는 목적으로 아들 문종을 위하여 권씨, 정씨, 홍씨 등 3명의 후궁을 동시에 간택하였다.³⁸⁾ 결국 임신한 후궁 권씨는 나중에 세자빈 봉씨가 폐출된 이후에 세자빈의 지위에 오르고³⁹⁾, 문종의 뒤를 이을 왕위계승자인 단종을 출산하였다. 이 사례는 왕세자 부부의 부부관계가 좋지 못할 경우에 후궁을 서둘러 간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왕실 후궁제도의 운영 방식과 그 변화

이미선의 연구에 의하면, 태조부터 성종까지 왕의 후궁은 전체 75명 정도로 추산된다.⁴⁰⁾ 이 통계에 의하면, 조선초기에는 1명의 왕이 평균 7-8명의 후궁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일찍 죽거나 왕위에서 물러난 왕들을 제외하면, 왕 개인별 평균 후궁 수는 더욱 늘어난다. 그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간택 여부가 불분명한 17명의 후궁을 제외하고, 간택후궁의 수는 30명이고, 승은후궁의 수는 28명으로 간택후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초기에 명문가에서 후궁의 지위에 오른 간택후궁을 통하여 왕실의 자손이 태어날 가능성이 높았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왕의 전체 후궁 수가 조선전기에 비하여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왕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평균 3명 정도의 후궁을 두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⁴¹⁾ 그리고

37) 『세종실록』 18년(1436) 10월 26일(무자).

38) 『세종실록』 13년(1431) 3월 15일(기묘).

39) 『세종실록』 18년(1436) 12월 28일(기축).

40) 이미선, 앞의 논문, 47쪽.

41) 조선후기 왕들의 정확한 후궁 수에 관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조선후기에 태어난 왕의 자녀 수와 왕자녀의 생모가 후궁인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은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표1의 조선후기 후궁 수 현황은 주로 지두환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지두환, 『조선의 왕실시리즈 14-26』, 도서출판 역사문화, 2000-2009). 후궁 수의 변화를 정치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유교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1-조선후기 후궁 수 현황

왕	간택후궁	승은후궁	불분명	없음
인조		1	2	
효종		2	1	
현종				0
숙종	1	5		
경종				0
영조		4		
정조	3	1		
순조		1		
헌종	1	1		
철종		7		
고종		7		
계	5	29	3	

표1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간택후궁의 수는 조선전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고, 이에 비하여 승은후궁의 수가 다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간택후궁을 들이는 방식과 시기에 나타난 변화이다. 조선전기에는 왕세자의 가례 때에 왕세자빈을 간택하는 과정에서 후궁을 함께 간택하거나 왕위에 오른 이후에 신하들이나 부왕의 요청에 의해서 ‘1빈2잉제’를 따라 최소한 3명의 간택후궁을 두었던 것과 비교해볼 때, 조선후기에는 왕비로부터 왕위계승자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왕위를 계승할 후사를 얻기 위해 공식적으로 간택후궁을 들이는 사례가 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숙종부터 철종까지 왕위를 계승할 후사를 얻기 위해 양반가를 대상으로 ‘간택’을 통해 숙의나 빈으로 입궁한 간택후궁은 모두 5명이다. 숙종의 후궁인 영빈 김씨, 정조의 후궁인 원빈 홍씨, 수빈 박씨, 화빈 박씨, 헌종의 후궁인 경빈 김씨가 바로 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왕위계승자를 출산한 간택후궁은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가 유일하다.⁴²⁾ 이는 조선전기 간택후궁의 수가 간택 여부가 불분명한 17명을 제외하고 30명에 이르렀던 사실과 비교하면 그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음을 잘 보여준다.

조선전기에 비해 조선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간택후궁 수의 감소현상은 간택후궁의 사회적 지위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조선전

42) 김지영, 앞의 논문, 47쪽.

기에는 왕의 후궁으로 간택되었다가 왕비의 지위에 오른 경우가 자주 등장한다. 앞에서 살펴본 문종의 비 현덕왕후 권씨가 그러하나, 그녀는 단종을 낳고 3일 만에 산후병으로 일찍 죽었다. 연산군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 또한 성종의 간택후궁으로 성종의 정비인 공혜왕후가 죽고 난 이후 왕비가 된 경우이다. 장경왕후 윤씨는 중종이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후 숙의로 간택되어 중종의 후궁으로 있다가 단경왕후 신씨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폐출되면서 왕비로 책봉되었다. 그녀 또한 1515년(중종 10) 2월 인종을 낳은 뒤 산후병으로 엿새 만에 죽었다. 이러한 사례는 조선전기에 간택후궁의 사회적 지위가 ‘유사시에’ 왕비의 지위에 오를 정도로 높았음을 잘 보여준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왕비와 후궁의 사회적 지위가 눈에 띄게 구별되기 시작한 것은 선조 이후이다. 그 이전에는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과 같이 왕비가 승하한 경우, 왕의 후궁 가운데서 왕비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선조 이후부터는 왕비가 왕보다 먼저 승하하는 경우, 계비(繼妃)를 새로 간택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선조는 인목왕후 김씨를 계비로 맞이하였고, 숙종 또한 정비(正妃)인 인경왕후 김씨가 승하한 이후 인현왕후 민씨와 인원왕후 김씨를 계비로 맞이하였다. 영조와 같이 60세의 나이에 15세의 어린 신부(정순왕후 김씨)를 계비로 맞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후기에는 왕위계승자를 낳은 후궁을 왕비로 책봉한 사례가 경종의 생모인 희빈 장씨를 제외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희빈 장씨의 경우, 간택후궁이 왕비의 지위에 오른 사례와 달리 승은후궁으로서 왕비의 지위에 오른 특별한 예외 사례에 해당된다.

유교적 이상사회를 지향했던 조선은 유교적 종법질서에 의해서 사회가 새로이 개편됨에 따라 조선후기로 갈수록 ‘가(家)의 계승’이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17세기 이후 ‘예학’이 발전하고, ‘주자가례’로 대표되는 예의 의례적 실천이 강조되면서 적장자(嫡長子)를 통한 가의 계승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되었다.⁴³⁾ 그러나 이러한 유교적 예법에 대한 강조는 다양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아이러니하게도 유교적 이상과 달리 현실세계에서는 적처로부터 적장자가 태어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

43) 정공식, 「조선전기 주자가례의 수용과 제사승계 관념」, 『역사민속학』 제12호(2001), 178-197쪽.

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후기 왕실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유교적 사회질서로 대표되는 남녀관념/적서관념이 조선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인간적 존재로서 남녀와 적서의 차이를 구별하는 차원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실천들을 통하여 차별하는 데로 나아갔다. 이로 인하여 태어난 자녀가 적처의 자녀인가 첩의 자녀인가에 따라 그 사회적 지위가 달라졌다. 그러나 왕실에서는 적장자가 태어나지 않을 경우에 양자를 들이는 일반 사가와 달리 왕비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도 왕위계승자가 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신분보다는 왕의 피가 흐르는 왕의 자녀라는 신분이 더욱 중시된 까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궁소생으로서 왕위에 오른 왕들은 지속적으로 생모를 추숭함으로써 자신의 생물학적 어머니로부터 오는 신분적 낙인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 생모인 공빈 김씨를 왕비로 추숭했던 일련의 과정⁴⁴⁾과 생모인 숙빈 최씨의 사당을 육상궁으로, 묘를 소령원으로 격상시킨 궁원묘제도를 마련한 영조의 노력이 대표적이다.⁴⁵⁾

이러한 사실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조선후기 후궁의 사회적 지위가 조선전기의 그것과는 눈에 띄게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즉 조선초기에 태종이 궁극적으로 왕실의 자손을 많이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마련한 후궁제도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후궁(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운영되었다. 비록 왕실의 후궁일지라도 양반가의 딸로서 첩의 지위를 갖는 간택후궁으로 입궁하는 것을 기피했으며,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간택후궁의 수가 줄어들었다. 조선후기 간택후궁수의 감소는 유교적 종법질서로 인한 처첩의 구분이 심화됨에 따라 왕비와 후궁 사이의 왕실가족 내 지위 차이가 현격하게 달라지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간택후궁수의 감소와 함께 승은후궁의 출산력 또한 감소하면서 왕의 자녀 수는 조선후기에 급감하게 되고, 헌종 이후 왕실 직계자손의 가계가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철종과 고종의 경우와 같이 방계지손으로부터 양자를 들여 왕위를 계승한 사례가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전기에는 왕비(또는 왕세자빈)를 간택하면서 2-3명의 간택

44) 계승범, 「공빈 추숭과정과 광해군의 모후문제」, 『민족문화연구』 제48호(2008), 373-406쪽.

45) 심재우, 「조선후기 제궁의 조성과정과 소속 궁방전의 추이」,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양안의 종합적 검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술발표문(2010).

후궁을 함께 들었던 왕실에서 조선후기로 갈수록 간택후궁을 뽑을 경우에는 왕위를 계승할 후사를 얻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고, 처음부터 후궁의 최고품계인 ‘빈’과 같은 높은 지위를 줌으로써 그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간택후궁을 통해서 태어날 왕위계승자의 신분적 지위(모의 신분)의 문제와도 깊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후궁의 신분적 지위 변화에 따라 조선전기와 달리 간택후궁보다는 승은후궁의 수가 증가하고, 승은후궁으로부터 왕의 자녀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승은후궁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왕위에 오른 경우, 간택후궁을 들이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 또한 주목된다.

3. 국왕의 ‘금육’기간 증가와 왕실 출산력의 저하

조선 건국을 주도했던 정치세력들은 가례의 시행을 체계적으로 법제화하고 국가 차원의 공권력을 동원하기도 하면서, 조선사회에 유교적 사회 질서를 보급하고자 하였다. 조선전기에는 상례와 제례에 유교적 요소와 불교적 요소가 병행되고, 각종 불교의례가 설행되는 등 일종의 과도적인 의례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조선중기 이후에 정치의 전면에 나선 사림파의 등장과 세력 확대로 인하여 조선초기와는 달리 성리학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기반으로 유교의례가 강화되었다. 유교의례의 정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통제가 수행되고, 지도층을 중심으로 유교의례의 실천에 숭선수범하면서 상례와 제례를 중심으로 유교적 예들이 실천되기에 이르렀다.⁴⁶⁾

조선사회에 종법적 사회질서를 뿌리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반복적 성격이 강한 의례인 제례를 중심으로 사회 변화를 주도해왔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조상제사를 지내기 위한 공간인 사당을 세우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초기부터 행해진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에 가서야 비로소 유교식 제례문화가 조선사회에 정착되었다. 유교식 제례의 정착과정은 조선사회에 유교적 가치와 규범, 그리고 이에 기초한 사회질서가 일상적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46) 안호용, 「유교 상례와 상종의 개인행위 규제」, 『사회와 역사』 제72집(2006), 131-167쪽.

데에 얼마나 많은 저항과 갈등, 그리고 타협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유교적 제사문화가 창출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정공식은 종법 내지 주자가례의 수용에 관한 기존 성과들을 검토하면서 조선초기에는 주자가례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으며⁴⁷⁾, 그 결과 주자가례가 지향하는 사회가 형성되지 않았고, 과도기인 조선중기를 거쳐 조선후기에야 비로소 가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제사에는 사후봉양과 가계계승이라는 두 가지 관념이 존재하는데, 조선 초기에는 사후봉양이라는 측면이 지속되다가 종법제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조선후기에 와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제사를 통한 가계계승의 관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상례의 경우, 왕실의 복제문제가 17세기 조선에서 예송논쟁을 일으키면서 예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예학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유교식 상례의 핵심적인 실천사항은 ‘3년상’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교 상례와 상중의 개인행위에 나타난 규제에 대해서는 안호용의 연구가 주목된다.⁴⁸⁾ 그의 연구는 ‘3년간의 복상’이 개인의 일상생활과 공직생활에 가하는 행위규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구속력이 상당히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한 개인의 일평생을 보면 자신이 의례의 중심인물이 되는 관례와 혼례, 1년을 단위로 하여 되풀이되는 제사, 그리고 단속적으로 경험하는 수많은 상례로 이루어져 있다. 국왕의 경우, 국왕에게 요구되는 국가제사를 추가하게 된다면, 한 인간으로서 경험해야 하는 의례들은 더욱더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3년상의 복상기간은 실제로 13개월째(12개월) 소상을, 25개월째(만 24개월) 대상을, 27개월째(만 26개월) 담제를 지내기 때문에 담제를 지내고 탈상한다면 만 26개월이 된다. 그렇다면 출산행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아내와의 잠자리’에 대한 금기가 언제 정확하게 풀리는가? 여기서는 이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주자가례』 상례 편을 보면, “대상이 지나면 침실로 돌아간다”라고 하였다. 이때 침실로 돌아가는 것은 거처나 침구의 규제 해소뿐만 아니라

47) 정공식, 앞의 논문, 178-198쪽.

48) 안호용, 앞의 논문, 131-167쪽.

‘아내와의 잠자리’도 같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봤을 때 3년상의 성적인 금욕기간은 정확하게 기일로부터 만 24개월, 즉 2년의 기간임을 알 수 있다. 국왕에게도 이러한 상중의 금욕은 엄수될 것이 요구되었다.

다음은 국왕의 금욕기간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록의 기사이다.

아! 4백 년이 된 종사(宗社)의 의탁이 오직 주상(主上)의 몸 하나에 달려 있는데, 춘추(春秋)가 거의 삼십에 가까워졌는데도 지금까지 오히려 종사(蠡斯)의 경사(慶事)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대왕(先大王)께서도 매양 낮이나 밤이나 근심하고 염려하시던 것을 곧 평소에 일찍이 앙도(仰觀)해오던 일로서, 오직 양암(諒闇)⁴⁹⁾ 뒤에나 거의 기대하고 있는 마음에 맞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중전(中殿)에게 병이 생기어 사숙(廟續)에 있어서 이제는 가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미망인이나 혜경궁(惠慶宮)의 뜻이 오로지 저사(儲嗣)를 널리 구하는 일에 있는데, 오늘날 주상의 신하된 사람들이 누군들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주상도 또한 이를 이해하기는 합나다마는,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⁵⁰⁾

여기서 ‘양암’은 영조의 국상으로 인한 정조의 거상기간을 의미한다. 선대왕이었던 영조의 근심과 염려에도 국상기간의 금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의무였으며, 그 때문에 왕위계승자의 탄생은 ‘양암 뒤에나’, 즉 국왕의 거상기간이 끝난 뒤에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상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국왕의 금욕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켜지지 않았던 사례도 보인다. 효종의 3년상을 마치고 종묘에 부묘하기 전에 임신하고, 부묘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산을 한 현종비 명성왕후의 사례가 그에 해당한다.

1661년(현종 2) 7월 7일 효종을 종묘에 부묘하였는데, 현종비 명성왕후는 같은 해 8월 15일 경덕궁(敬德宮, 현재의 경희궁) 회상전에서 숙종을 출산하였다. 적어도 3년상 기간 안에 엄수해야 할 성적인 금기를 파기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송시열의 ‘비난’을 받았던 것을 상기해보면, 이상적인 예의 실천과 현실세계의 ‘욕구’ 사이에서 나타나는 격차로 왕실가족 또한 난처한 경우에 처할 수 있음을 보게 된다. 이 사례의 경우, 그 당시 왕위계승자를 얻지 못했던 현종과 명성왕후의 ‘불안’과 왕위계승자

49) 임금의 거상(居喪).

50) 『정조실록』 2년(1778) 5월 2일(신유).

를 얻으려는 강한 ‘육구’가 맞물려 금욕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 또한 이해되면서도 여전히 예를 엄중히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신하의 ‘눈’은 왕실에서 이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결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금욕기간과 왕자녀들의 생년월일을 비교해 보면 실제 국왕의 상·제례 기간 동안의 재계 실천 여부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여기서는 조선후기 발생한 왕실 상례의 현황을 중심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선조 이후부터 왕의 정비가 승하할 경우, 계비를 들이는 것이 관례화되면서 상례의 대상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왕위계승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국왕이 지켜야 할 부모의 3년상 대상자 또한 늘어나게 되었다. 조선후기에 나타나는 왕위계승상의 특징으로 인해 왕위계승상의 부모와 낳아주신 부모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한 의례대상자 수와 의례기간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조선후기에 왕비들이 일찍 죽으면서 계비를 들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 또한 조선후기 국왕의 금욕기간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국왕이 수행해야 할 제사대상자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도표5는 조선후기 왕과 왕비의 제사일을 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2-조선후기 왕과 왕비의 승하날짜

왕과 왕비	승하날짜	왕과 왕비	승하날짜
선조비 의인왕후	1600년 06월 27일	경종계비 선의왕후	1730년 06월 29일
원종비 인현왕후	1626년 01월 14일	진종비 효순왕후	1751년 11월 14일
선조계비 인목왕후	1632년 06월 28일	영조비 정성왕후	1757년 02월 15일
인조비 인렬왕후	1634년 12월 09일	숙종계비 인원왕후	1757년 03월 26일
인조	1649년 05월 08일	영조	1776년 03월 05일
효종	1659년 05월 04일	정조	1800년 06월 28일
효종비 인선왕후	1674년 02월 24일	영조계비 정순왕후	1805년 01월 12일
현종	1674년 08월 18일	장조비 헌경왕후	1815년 12월 15일
숙종비 인경왕후	1680년 10월 23일	정조비 효의왕후	1821년 03월 09일
현종비 명성왕후	1683년 12월 05일	순조	1834년 11월 13일
인조계비 장렬왕후	1688년 08월 26일	현종비 효현왕후	1843년 08월 25일
숙종계비 인현왕후	1701년 08월 14일	현종	1849년 06월 06일
경종비 단의왕후	1718년 02월 07일	순조비 수원왕후	1857년 08월 04일
숙종	1720년 06월 08일	철종	1863년 12월 08일
경종	1724년 08월 25일	익종비 신정왕후	1890년 4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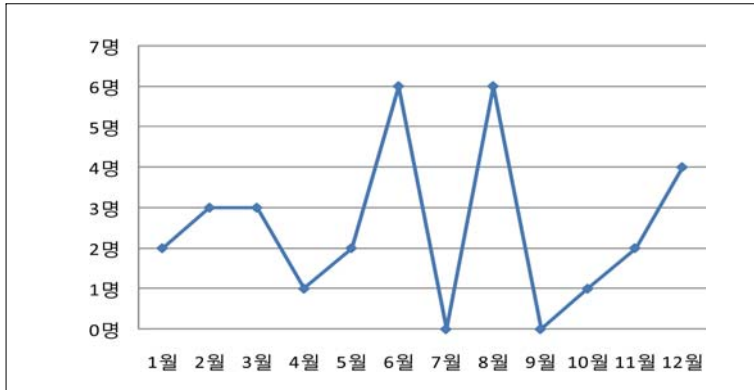


도표5-조선후기 국왕의 월별 제사대상자 수 (표2를 기준으로 작성함)

이는 곧 조선후기 국왕이 1년 동안 수행해야 하는 제사대상자 수이기도 하다. 이는 추후에 개별적인 사례연구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월별 제사대상자 수를 통해 조선후기 국왕의 재계기간의 대략적인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월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6월과 8월에는 제사대상자가 모두 6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기본적인 3일 재계를 수행할 경우, 6월과 8월에는 각각 30일 가운데 18일을 금욕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조선후기 왕과 왕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여기에 국왕이 친행해야 하는 국가제사가 추가될 경우 더욱 늘어나고, 각종 금기 등이 추가되면 국왕의 금욕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⁵¹⁾

이를 통해 조선시대 국왕들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재계기간(또는 금욕기간)이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즉, 상례의 3년상 제도의 정착과 제사대상자 수의 증가로 인하여 국왕의 금욕기간은 꾸준히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국왕이 수행해야 할 금욕기간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왕실 가임여성 수의 감소와 맞물려 왕실 출산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1) 『주자가례』 「제례」에는 모두 6종류의 제사가 등장한다. 이 가운데 사시제(四時祭), 초조(初祖, 시조), 네(禰, 아버지), 선조(先祖)를 대상으로 한 제사는 3일 재계를, 기일(忌日), 묘제(墓祭)의 경우에는 1일 재계를 규정하고 있다. 주희 지음, 임민혁 옮김, 『주자가례』(예문서원, 2009), 429~491쪽 참조.

V. 맺음말

이 글은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출산력을 시기별 변화추이와 그 사회문화적 함의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연구보다는 통계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왕실 출산력 수준에 나타난 변화상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왕실자손이 번성하는 경사를 일컫는 용어인 ‘종사지경(蟲斯之慶)’이 왕실이라는 맥락에서 의미하는 바를 고찰하였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자녀의 탄생은 곧 조선이라는 국가의 번영과도 맞닿아 있었으며, 이는 곧 국가의 경사인 ‘종사지경(宗社之慶)’과 동일시되었다. 그리고 왕실가족의 다산에 대한 소망은 왕실 가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로는 조선시대 왕실족보를 활용하여 왕실 여성들의 자녀출산과 왕실 출산력에 나타난 변화들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출산력에 변화를 가져온 직접적인 요인은 조선후기 왕비의 출산력 저하와 후궁 수의 감소로 인한 후궁 출산력의 저하에 있음이 드러났다.

세 번째로는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의 출산력 저하에 영향을 준 사회문화적 요인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유교적 종법질서에 영향을 받은 처첩관념의 심화로 인한 간택후궁 수의 감소와 유교적 예제, 특히 상례와 제례기간 동안의 재계기간 엄수와 상례와 제례대상자 수의 증가로 인한 재계기간의 증가가 왕실 출산력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기술하였다. 즉, 왕실 여성의 출산력 저하를 조선사회의 유교화 과정과의 연관성하에서 해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선사회의 유교화 과정이 언뜻 보면 유교적 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출산행위와 같은 보다 사적인 일상생활의 영역까지도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부록1-조선 왕실의 자녀출산*

왕	왕후	후궁	차서				자녀명				자녀 수	
			왕비		후궁		왕비 자녀		후궁 자녀		왕비 후궁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太祖	神懿王后		1				鎮安大君				11	13
			2				定宗					
			3				益安大君					
			4				懷安大君					
			5				太宗					
			6				德安大君					
	神德王后		1				慶愼公主					
			2				慶善公主					
			7				撫安大君					
			8				宜安大君					
			3				慶順公主					
	未詳			1				宜寧翁主	2			
	未詳			2				淑愼翁主				
	定安王后								0	23		
定宗	淑儀池氏		1				義平君					
	淑儀奇氏		2				順平君					
	淑儀奇氏		3				錦平君					
	淑儀池氏		4				宣城君					
	淑儀文氏		5				從儀君					
	侍儀李氏		6				鎮南君					
	淑儀尹氏		7				守道君					
	淑儀尹氏		8				林壘君					
	淑儀尹氏		9				石保君					
	誠嬪池氏		10				德泉君					
	淑儀池氏		11				任城君					
	誠嬪池氏		12				桃平君					
	淑儀尹氏		13				長川君					
	淑儀奇氏		14				貞石君					
	淑儀奇氏		15				茂林君					
	淑儀池氏			1				咸陽翁主				
	淑儀奇氏			2				淑愼翁主				
	未詳			3				德川翁主				
	未詳			4				高城翁主				
	未詳			5				祥原翁主				
	未詳			6				全山翁主				
	淑儀尹氏			7				仁川翁主				
	未詳			8				咸安翁主				
太宗	元敬王后	1				讓寧大君						
		2				孝寧大君						

* 왕실보첩인 『선원계보기략』(K2-1031, 1908년)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고종의 경우, 보첩이 작성된 이후에 탄생한 자녀들을 추가하였다.

왕	왕후	후궁	차서				자녀명				자녀 수		
			왕비		후궁		왕비 자녀		후궁 자녀		왕비 후궁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太宗	元敬王后		3				世宗				8	29	
			4				誠寧大君						
				1				貞順公主					
				2				慶貞公主					
				3				慶安公主					
				4				貞善公主					
		孝嬪金氏			1				敬寧君		21		
		信嬪辛氏			2				誠寧君				
		信嬪辛氏			3				溫寧君				
		信嬪辛氏			4				謹寧君				
		安氏			5				惠寧君				
		淑儀崔氏			6				熙寧君				
		崔氏			7				厚寧君				
		善嬪安氏			8				益寧君				
		懿嬪權氏				1				貞惠翁主			
		信嬪辛氏				2				貞信翁主			
		信嬪辛氏				3				貞靜翁主			
		信嬪辛氏				4				淑貞翁主			
		未詳				5				昭善翁主			
		昭嬪盧氏				6				淑惠翁主			
		信嬪辛氏				7				淑寧翁主			
		安氏				8				昭淑翁主			
		信嬪辛氏				9				淑慶翁主			
		安氏				10				敬愼翁主			
		金氏				11				淑安翁主			
		信嬪辛氏				12				淑謹翁主			
		李氏				13				淑順翁主			
世宗	昭憲王后		1				文宗				10	22	
			2				世祖						
			3				安平大君						
			4				臨瀛大君						
			5				廣平大君						
			6				錦城大君						
			7				平原大君						
			8				永膺大君						
				1				貞昭公主					
				2				貞懿公主					
		令嬪姜氏			1				和義君		12		
		愼嬪金氏			2				桂陽君				
		愼嬪金氏			3				義昌君				
		惠嬪楊氏			4				漢南君				
		愼嬪金氏			5				密城君				
		惠嬪楊氏			6				壽春君				

왕	왕후	후궁	차서				자녀명				자녀 수		
			왕비		후궁		왕비 자녀		후궁 자녀		왕비 후궁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愼嬪金氏			7				翼峴君				
		惠嬪楊氏			8				永豐君				
		愼嬪金氏			9				寧海君				
		愼嬪金氏			10				潭陽君				
		尙寢宋氏				1				貞顯翁主			
		淑媛李氏				2				貞安翁主			
文宗	顯德王后		1				端宗				2	3	
		司則楊氏		1				敬惠公主					
端宗	定順王后										1	0	
世祖	貞熹王后		1				德宗					3	5
			2				睿宗						
				1				懿淑公主					
		謹嬪朴氏			1			德源君			2		
	謹嬪朴氏				2			昌原君					
德宗	昭惠王后		1				月山大君					3	3
			2				成宗						
				1				明淑公主					
睿宗	章順王后		1				仁城大君					3	3
	安順王后		2				齊安大君						
					1				顯肅公主				
成宗	恭惠王后											2	28
	貞顯王后		1				中宗						
					1				愼淑公主				
		廢妃尹氏				1				燕山君			
		淑儀河氏				2				桂城君			
		貴人鄭氏				3				安陽君			
		淑儀洪氏				4				完原君			
		淑儀洪氏				5				檜山君			
		貴人鄭氏				6				鳳安君			
		淑儀洪氏				7				甄城君			
		淑儀洪氏				8				益陽君			
		淑容沈氏				9				利城君			
		淑儀洪氏				10				景明君			
		貴人權氏				11				全城君			
		明嬪金氏				12				茂山君			
		淑容沈氏				13				寧山君			
		淑儀洪氏				14				雲川君			
		淑儀洪氏				15				楊原君			
		淑儀洪氏					1				惠淑翁主		
		淑儀金氏					2				徽淑翁主		
		貴人嚴氏					3				恭愼翁主		
		淑容沈氏					4				慶順翁主		

왕	왕후	후궁	차서				자녀명				자녀 수	
			왕비		후궁		왕비 자녀		후궁 자녀		왕비 후궁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淑儀金氏			5				敬淑翁主			
		淑儀洪氏			6				靜順翁主			
		淑容沈氏			7				淑惠翁主			
		淑容權氏			8				慶徽翁主			
		淑儀金氏			9				徽靜翁主			
		貴人鄭氏			10				靜惠翁主			
		淑儀洪氏			11				靜淑翁主			
燕山君	廢妃愼氏		1			廢世子					3	5
			2			昌寧大君						
				1			徽順公主					
		廢淑儀李氏		1				陽平君			2	
		廢淑容張氏		2				靈壽				
	端敬王后											
	章敬王后		1			仁宗						
			1				孝惠公主					
	文定王后		2			明宗					7	
			2				懿惠公主					
			3				孝順公主					
			4				敬顯公主					
			5				仁順公主					
中宗		敬嬪朴氏			1				福城君		13	20
		淑儀洪氏			2				海安君			
		熙嬪洪氏			3				錦原君			
		昌嬪安氏			4				永陽君			
		淑儀李氏			5				德陽君			
		熙嬪洪氏			6				鳳城君			
		昌嬪安氏			7				德興大院君			
		敬嬪朴氏			1					惠順翁主		
		敬嬪朴氏			2					惠靜翁主		
		淑媛李氏			3					貞順翁主		
		淑媛李氏			4					孝靜翁主		
		淑媛金氏			5					淑靜翁主		
		昌嬪安氏			6					靜愼翁主		
仁宗	仁聖王后									0	0	
明宗	仁順王后		1			順懷世子				1	1	
宣祖	懿仁王后										2	25
	仁穆王后		1			永昌大君						
				1			貞明公主					
		恭嬪金氏			1				臨海君		23	
		恭嬪金氏			2				光海君			
		仁嬪金氏			3				義安君			
仁嬪金氏				4				信城君				

왕	왕후	후궁	차서				자녀명				자녀 수		
			왕비		후궁		왕비 자녀		후궁 자녀		왕비 후궁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仁嬪金氏			5				元宗				
		順嬪金氏			6				順和君				
		靜嬪閔氏			7				仁城君				
		仁嬪金氏			8				義昌君				
		貞嬪洪氏			9				慶昌君				
		溫嬪韓氏			10				興安君				
		溫嬪韓氏			11				慶平君				
		靜嬪閔氏			12				仁興君				
		溫嬪韓氏			13				寧城君				
		仁嬪金氏			1				貞慎翁主				
		仁嬪金氏			2				貞惠翁主				
		仁嬪金氏			3				貞淑翁主				
		靜嬪閔氏			4				貞仁翁主				
		仁嬪金氏			5				貞安翁主				
		仁嬪金氏			6				貞徽翁主				
		靜嬪閔氏			7				貞善翁主				
		貞嬪洪氏			8				貞正翁主				
		靜嬪閔氏			9				貞謹翁主				
		溫嬪韓氏			10				貞和翁主				
光海君	廢妃柳氏		1			廢世子				1	2		
	未詳				1				未詳	1			
元宗	仁獻王后		1			仁祖					3	4	
			2			綾原大君							
			3			綾昌大君							
		金氏			1			綾豐君		1			
仁祖	仁烈王后		1			昭顯世子					5	8	
			2			孝宗							
			3			麟坪大君							
			4			龍城大君							
			5			早卒							
	莊烈王后										3		
		廢趙貴人			1				崇善君				
					2				樂善君				
孝宗	仁宣王后					1				孝明翁主	7	8	
			1				顯宗						
				1				淑慎公主					
				2				淑安公主					
				3				淑明公主					
				4				淑徽公主					
				5				淑靜公主					
				6				淑敬公主					
		安嬪李氏				1				淑寧翁主	1		
顯宗	明聖王后		1			肅宗				4	4		

왕	왕후	후궁	차서				자녀명				자녀 수		
			왕비		후궁		왕비 자녀		후궁 자녀		왕비 후궁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明善公主					
				2				明惠公主					
				3				明安公主					
肅宗	仁敬王后			1				早卒			2	8	
				2				早卒					
	仁顯王后												
	仁元王后												
		玉山府			1			景宗					6
		大嬪張氏			2				盛壽				
		淑嬪崔氏			3				永壽				
					4				英祖				
					5				早卒				
		褻嬪朴氏			6				延齡君				
景宗	端懿王后									0	0		
	宣懿王后												
英祖	貞聖王后										0	14	
	貞純王后												
		靖嬪李氏			1				眞宗				14
		暎嬪李氏			2				莊祖				
		靖嬪李氏			1					早卒			
					2					和順翁主			
		暎嬪李氏			3					和平翁主			
					4					早卒			
					5					早卒			
					6					早卒			
					7					和協翁主			
		貴人趙氏			8					早卒			
		暎嬪李氏			9					和緩翁主			
		貴人趙氏			10					和柔翁主			
廢淑儀文氏			11					和寧翁主					
			12					和吉翁主					
眞宗	孝純王后									0	0		
莊祖	獻敬王后		1				懿昭世孫				4	8	
			2				正祖						
			1				清衍公主						
			2				清璿公主						
		肅嬪林氏			1				恩彥君		4		
				2					恩信君				
		景嬪朴氏			3				恩全君				
					1					清瑾翁主			
正祖	孝懿王后									0	4		
	宜嬪成氏			1				文孝世子		4			
	綏妃朴氏			2				純祖					

왕	왕후	후궁	차서				자녀명				자녀 수		
			왕비		후궁		왕비 자녀		후궁 자녀		왕비 후궁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宜嬪成氏				1				早卒			
		綏妃朴氏				2				淑善翁主			
純祖	純元王后		1				文祖				5	6	
			2				早卒						
				1				明溫公主					
				2				福溫公主					
				3				德溫公主					
		淑儀朴氏				1				永溫翁主	1		
文祖	神貞王后		1				憲宗				1	1	
憲宗	孝顯王后										0	1	
	孝定王后												
		淑儀金氏				1				早卒	1		
	哲仁王后		1				早卒				1		
哲宗		貴人朴氏			1					早卒		10	11
		貴人趙氏			2					早卒			
		貴人趙氏			3					早卒			
		宮人李氏			4					早卒			
		淑儀方氏				1					早卒		
		淑儀方氏				2					早卒		
		淑儀金氏				3					早卒		
		淑儀范氏				4					永惠翁主		
		宮人朴氏				5					早卒		
		宮人李氏				6					早卒		
高宗	明成皇后		1				早卒				5	14	
			2				純宗						
			3				早卒						
			4				早卒						
				1				早卒					
		貴人李氏			1					完王			9
		貴人張氏			2					義王			
		貴妃嚴氏			3					英親王			
		貴人李氏			4					早卒			
		貴人鄭氏			5					早卒			
		貴人李氏				1					早卒		
		貴人李氏				2					早卒		
		貴人李氏				3					早卒		
		貴人梁氏				4					德惠翁主		
純宗	純明孝 皇后										0	0	
	純貞孝 皇后												
총계			55	38	97	83						93 180	273

부록2-조선시대 왕비의 출산력*

왕	왕후	출생 연도	가례 시 연령	출산 시 연령	차서	자녀명	출생연도
太宗	元敬王后	1365	18	21	1	貞順公主	1385
				?	2	慶貞公主	미상
				29	3	慶安公主	1393
				30	4	讓寧大君	1394
				32	5	孝寧大君	1396
				33	6	世宗	1397
				40	7	誠寧大君	1404
				41	8	貞善公主	1405
世宗	昭憲王后	1395	14	18	1	貞昭公主	1412
				20	2	文宗	1414
				21	3	貞懿公主	1415
				23	4	世祖	1417
				24	5	安平大君	1418
				24	6	臨瀛大君	1418
				31	7	廣平大君	1425
				32	8	錦城大君	1426
				33	9	平原大君	1427
				40	10	永膺大君	1434
文宗	顯德王后	1418	14*	24	1	端宗	1441
				29	2	敬惠公主	1446
端宗	定順王后	1440	15				
世祖	貞熹王后	1418	11	21	1	德宗	1438
				33	2	睿宗	1450
					3	懿淑公主	?
德宗	昭惠王后	1437	19	19	1	月山大君	1455
				20	2	明淑公主	1456
				21	3	成宗	1457
睿宗	章順王后	1445	15	17	1	仁城大君	1461
	安順王后	미상		?	1	顯肅公主	1464
				?	2	齊安大君	1466
成宗	恭惠王后	1455	13				
	貞顯王后	1461	13	21	1	愼淑公主	1481
				28	2	中宗	1488
中宗	端敬王后	1487	13				
	章敬王后	1491	16	21	1	孝惠公主	1511
				25	2	仁宗	1515

* 현덕왕후 권씨의 경우, 문종의 간택후궁으로 입궁한 날을 가례일로 계산하였다.

왕	왕후	출생 연도	가례 시 연령	출산 시 연령	차서	자녀명	출생연도
中宗	文定王后	1501	17	21	1	懿惠公主	1521
				22	2	孝順公主	1522
				30	3	敬顯公主	1530
				34	4	明宗	1534
				42	5	仁順公主	1542
仁宗	仁聖王后	1514	11				
明宗	仁順王后	1532	14	20	1	順懷世子	1551
宣祖	懿仁王后	1555	15				
	仁穆王后	1584	19	20	1	貞明公主	1603
				23	2	永昌大君	1606
元宗	仁獻王后	1578	13	15	1	綾原大君	1592
				18	2	仁祖	1595
				22	3	綾昌大君	1599
仁祖	仁烈王后	1594	17	19	1	昭顯世子	1612
				26	2	孝宗	1619
				29	3	麟坪大君	1622
				36	4	龍城大君	1629
				42	5	早卒	1635
	莊烈王后	1624	15				
孝宗	仁宣王后	1618	14	18	1	淑愼公主	1635
				19	2	淑安公主	1636
				23	3	淑明公主	1640
				24	4	顯宗	1641
				25	5	淑徽公主	1642
				28	6	淑靜公主	1645
				31	7	淑敬公主	1648
顯宗	明聖王后	1642	10	18	1	明善公主	1659
				20	2	肅宗	1661
				21	3	明惠公主	1662
				24	4	明安公主	1665
肅宗	仁敬王后	1661	11	19	1	早卒	1679
				20	2	早卒	1680
	仁顯王后	1667	15				
景宗	仁元王后	1687	16				
	端懿王后	1686	11				
	宣懿王后	1705	14				
英祖	貞聖王后	1692	13				
	貞純王后	1745	15				
眞宗	孝純王后	1715	11				
莊祖	獻敬王后	1735	10	16	1	懿昭世孫	1750

왕	왕후	출생 연도	가례 시 연령	출산 시 연령	차서	자녀명	출생연도
				18	2	正祖	1752
				20	3	清衍公主	1754
				22	4	清璿公主	1756
正祖	孝懿王后	1753	10				
純祖	純元王后	1789	14	21	1	文祖	1809
				22	2	明溫公主	1810
				30	3	福溫公主	1818
				32	4	早卒	1820
				34	5	德溫公主	1822
文祖	神貞王后	1808	11	20	1	憲宗	1827
憲宗	孝顯王后	1828	10				
	孝定王后	1831	14				
哲宗	哲仁王后	1837	15	22	1	早卒	1858
高宗	明成皇后	1851	16	21	1	早卒	1871
				23	2	早卒	1873
				24	3	純宗	1874
				25	4	早卒	1875
				28	5	早卒	1878
純宗	純明孝皇后	1872	11				
	純貞孝皇后	1894	13				

참 고 문 헌

- 주희 지음, 임민혁 옮김, 『주자가례』. 예문서원, 2009.
- 『女官制度의 沿革』(K2-2032).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 장서각 한국학자료센터 왕실족보DB <http://royal.kostma.net/Ge/Main>.
-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http://people.aks.ac.kr>.
- 계승범, 「공빈 추승과정과 광해군의 모후문제」. 『민족문화연구』 제48호, 2008, 373-406쪽.
- 권태환·김두섭,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김은실, 「출산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제12권 2호, 1996, 119-153쪽.
- 김지영, 「조선 왕실의 출산문화 연구: 역사인류학적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김태환·이삼식·김동희,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인구센서스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2006, 1-23쪽.
- 김한곤, 『한국 출산력 변화의 원인과 전망』. 영남대학교출판부, 1993.
- 성봉현, 「조선시대 비빈의 간택과 왕비가문」. 『장서각 소장 왕실 보첩 자료와 왕실구성원』, 민속원, 2010, 124-151쪽.
- 손병규, 「인구사적 측면에서 본 호적과 족보의 자료적 성격-17-19세기 경상도 단성현의 호적대장과 합천이씨의 족보」. 『대동문화연구』 제46집, 2004, 79-109쪽.
- 심재우, 「조선후기 제궁의 조성과정과 소속 궁방전의 추이」.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양안의 종합적 검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술발표문, 2010.
- 안호용, 「유교 상례와 상중의 개인행위 규제」. 『사회와 역사』 제72집, 2006, 131-167쪽.
- 은기수,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최근의 낮은 출산력 수준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5집 6호, 2001, 105-139쪽.
- 이기순, 「조선후기 사족의 출생과 사망」. 『사총』 제60권, 2005, 101-147쪽.
- 이미선, 「조선 초기의 후궁-태조-성종조 후궁의 신분적 지위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96호, 2009, 39-90쪽.
- 이성미, 「장서각소장 조선왕조 가례도감의궤의 미술사적 고찰」. 『장서각소장 가례도감 의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34-115쪽.
- _____,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된 병풍」.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특별강연 궁궐의 장식그림 자료집』, 국립고궁박물관, 2009.
- 이성용, 「남아 선호와 출산력 간의 관계」. 『한국인구학』 제26권 제1호, 2006, 31-57쪽.
- 이영숙, 「조선초기 내명부에 대하여」. 『역사학보』 96집, 1982, 92-138쪽.
- 이흥탁, 『인구학-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4.

정궁식, 「조선전기 주자가례의 수용과 제사승계 관념」, 『역사민속학』 제12호, 2001, 178-198쪽.

지두환, 『조선의 왕실시리즈 14-26』, 도서출판 역사문화, 2000-2009.

차명수, 「조선후기의 출산력, 사망력 및 인구증가: 네 족보에 나타난 1700-1899년간 생물 기록을 이용한 연구」, 『한국인구학』 제32권 제1호, 2009, 113-137쪽.

국 문 요 약

이 글은 조선시대 특수한 신분계층에 속하면서 비교적 정확한 인구학적 자료들을 남기고 있는 왕실 여성들의 출산력 수준과 변화추이, 그리고 그 변화에 영향을 준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의 출산력과 왕대별 자녀 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왕실 출산력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 왕실 여성의 출산력 감소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왕실자손이 번성하는 경사를 일컫는 용어인 ‘종사지경(螽斯之慶)’이 왕실이라는 맥락에서 의미하는 바를 고찰하였다. 왕자녀의 탄생은 곧 조선이라는 국가의 번영과도 맞닿아 있었으며, 이는 곧 국가의 경사인 ‘종사지경(宗社之慶)’과 동일시되었다.

두 번째로, 조선시대 왕실족보를 활용하여 왕실 여성들의 자녀출산과 왕실 출산력에 나타난 변화들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출산력에 변화를 가져온 직접적인 요인은 조선후기 왕비의 출산력 저하와 후궁 수의 감소로 인한 후궁출산력의 저하에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왕실 여성의 출산력 수준은 인조 이전과 인조 이후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인조 이후에는 왕비와 후궁소생의 자녀 수가 모두 감소하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왕비소생 자녀 수의 감소폭에 비하여 후궁소생 자녀 수의 감소폭이 눈에 띄게 커졌음을 밝혔다.

세 번째로,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의 출산력 저하에 영향을 준 사회문화적 요인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유교적 종법질서에 영향을 받은 처첩관념의 심화로 인한 간택후궁 수의 감소와 유교적 예제, 특히 상례와 제례기간 동안의 재계기간 엄수와, 상례와 제례대상자 수의 증가로 인한 재계기간의 증가가 왕실출산력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기술하였다. 왕이라고 하는 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가임기 여성 수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왕실의 자녀 수를 감소시켰다. 또한 예의 실천이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심화되면서 왕의 금욕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한 남성을 공유한 왕실 여성들의 출산력은 자연히 감소하게 되었다. 즉, 왕실 여성의 출산력 저하가 조선사회의 유교화 과정과의 연관성 하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하

였다. 이를 통하여 조선사회의 유교화 과정은 언뜻 보면 유교적 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출산행위와 같은 사적인 일상생활의 영역에도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투고일 2011. 6. 20.

수정일 2011. 8. 5.

게재 확정일 2011. 8. 18.

주제어(keyword) 출산력(fertility), 유교화(Confucianization), 왕실 여성(royal women), 간택 후궁(Gantaek hugung(揀擇後宮)), 승은후궁(Seungeun hugung(承恩後宮)), 재계(sexual abstinence(齋戒))

